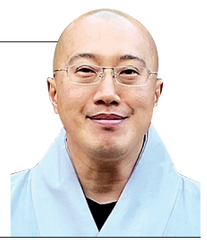
현불논단

지구가 아프니 우리도 아프다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물질문명 발달로 생활 안락해졌지만 그로 인한 환경파괴, 기후위기 초래 배달용기, 비닐봉지 등 쓰레기 양산 버리는 게 아니라 숨기는 것에 불과

보살은 원인, 중생은 결과 두려워 해 기후위기라는 결과 아닌 원인 살펴야 현 상황 만든 것은 자신임을 인지해야 지구의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온다

장마를 앞두고 연일 뉴스에서 "이번 장마는 역대급으로 비가 많이 올 것이다", "7월 한 달은 3일을 빼고 비가 올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얼마 전 괌을 강타한 태풍이 돌연 경로를 일본으로 바꿔 또다시 큰 피해를 입혔다. 이처럼 올해도 장마와 태풍 등 기후문제에 관한 불안한 뉴스가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다.

물질문명이 발달하며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락하고 편리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편리함을 맛본 인류는 그보다 더 편하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별한 날에 식사준비의 수고를 줄이기 위해 온 가족이 외식을 나가 추억을 쌓았으나, 경제가 발달하며 월급날이 되면 으레 아버지가 사온 통닭으로 기억되는 집 안에서의 특식으로 변모된다. 그러다가 폭발적인 생활편의의 발달과 함께 집 안의 구성원이 줄어들고 식사를 차리는 것조차 번거로워지며 배달음식이라는 것이 정착되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식사문화의 변화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당연히 예측된 모습이다. 그러나 이 변화 속에는 큰 문제점이 있었다. 바로 쓰레기 문제다. 과거에는 식사를 준비하고 치우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식사의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키고 다 먹고 나면 비닐봉지에 일회용 식기를 담아 버린다. 즉 치우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버린다는 개념은 그저 지금 내 앞에서만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사실은 다른 곳으로 치우는 것이다. 과연 어디로 치우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지만 더 확장해서 보면 지구에 산다. 다시 말해 그 쓰레기들을 치울 곳이 내 주변을 떠난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쓰레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날이 점차 더워짐에 따라 나만 시원하면 된다는 생각에 오후부터는 모든 집과 회사에서 냉방 기구를 사용하고,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기 위해 가까운 거리도 꼭 차로 다니는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 곳곳에는 이 편리함이라는 것에 의해 자신만을 생각한 무의식적인 이기주의가 정착해버린 것이다.

'보살외인 중생외과(菩薩畏因 衆生畏果)' 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 는 뜻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걱정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적으로 행동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 앞에 결과가 되어 다가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 매년 더 큰 걱정을 하며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이 지구에서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구에 사는 생명이 우리 인간만이 아니며, 또한 우리만이 지구에서 사는 마지막 인간인 것도 아니다. 그저 시절인연으로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어그러진 지구의 자연환경과 그에 따른 기후문제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그 극복책을 강구해야 하는 건 변함없지만, 이제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유발한 원인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알아야 한다. 결국 우리의 지구가 오염되어 아프고 고통스러워한다면, 그 아픔과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만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내일은 늦는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종이컵의 사용을 줄이고, 에어컨 대신 창문을 열며, 배달박스의 비닐테이프를 떼어내는 작은 수고로움을 실천한다면, 반드시 내일의 우리에게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을 스스로 마련해줄 것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결과 아닌 과정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저 나름대로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이 나의 재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장자〉에 보면 '쓸모없는 나무가 산을 지킨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은 없습니다. 휘어진 나무는 휘어진 대로 가치가 있고, 생채기가 있는 나무는 그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궁전의 대들보가 되어야 하고, 웅장한 집의 대들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쓸모가 없어서 산을 지킨다는 것은 쓰임이 없어 생명을 보전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쓰임이 없다고 하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서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했을 겁니다.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서 한여름의 땀을 식힐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나무의 이런 역할은 잊어버리고 결과만을 따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지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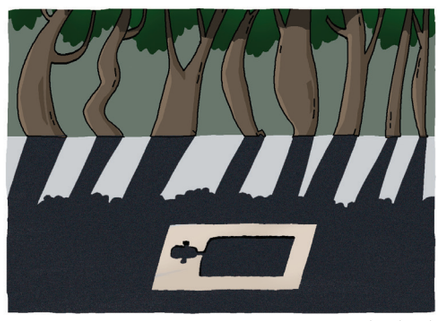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꼭 성공해야 한다' 는 결과를 향해 가면 자신이 힘이 듭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 해야겠다' 는 생각으로 일을 하다보면 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 산정상이 목표라면 참으로 재미없을 겁니다. 산을 오르면서 새소리도 듣고, 계곡물에 손도 씻어보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도 보고, 시원한 바람을 만나고, 낮게 핀 들꽃도 들여다보는 그런 재미가 더 클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먼 길을 가면서 그 과정을 즐겨야 합니다. 오로지 산 정상을 목표로 부지런히 올라간 사람은 진정 산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성공과 결과에 집착하다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잘되면 좋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부담이 적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합니다. 기성세대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돈 많이 벌고, 이름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런 사람만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앞에는 자신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이 필요로 여기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대불청, 청년포교 전기 마련 기대

한국불교는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2005년보다 불교인구가 약 300만 명 감소했다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불교계는 이미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종교인구 부동의 1위 자리를 개신교에 내줘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미래세대라는 계층포교의 미흡으로 이웃종교 대비 청소년과 청년층이 비중이 가장 적었다는 점이다. 당시 결과에서 19세 이하와 20~30대 종교인구를 더했을 때 불교는 28.4%에 불과했다. 개신교 47.1%, 가톨릭 42.2%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다.

이런 성적표를 받아든 이후 불교계의 가장 큰 화두는 언제나 미래세대였다. 조계종은 백년대계본부를 설립해 산하에 미래세대위원회를 조직했고, 여러 사찰에서도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최근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동국대, 조계종 포교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캠퍼스 포교에 사활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포교의 핵심 주체 가운데 하나인 대한불교청년회는 지난해 말 국제불교청소년교환캠프 국내 유치를 이끌어내며 한국불교의 저력을 세계에 확인시켰다. 대만과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웃나라와의 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확고한 입지를 다진 셈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가오는 가을, 한국불교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잊지 말자. 청년포교는 늘 이제 시작이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미래세대의 관심은 사그라진다. 만해백일장, 사찰문화해설사 양성, 군장병 포교 등 포교단체로서 대불청의 활동이 불교계 모범사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가적 대응을

일본 정부가 내년 6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쏟아붓겠다고 결정하자 시민들을 비롯한 불교계가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 규탄에 나섰다. 우리 정부에는 "이웃나라들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로 무책임한 결정을 용납하면 안 된다"며 명확한 반대의사 표명과 국제법 제소 등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계는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핵 공격"이라며 연일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과 시위 등 총력 대응 중이다. 후쿠시마 발전소와 가장 인접국가인 한국은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이기에 완벽하고 철저한 검증 없는 오염수 방류를 멈추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불교계는 일본정부가 2021년 4월,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규탄활동을 펼쳐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주기적인 기도회를 통해 "재앙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높여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방한한 올해 5월 8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통해 규탄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불교환경연대 역시 환경단체들과 연계, 본격적인 반대활동에 나섰다.

핵방사능 오염수 해양 토기 저지 서명운동에 나서며 캠페인과 1인시위에 자발적으로 나선 스님들도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국가인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바다를 공유한 대만과 중국 등 동아시아 전체 시민들의 건강과 바다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엄중한 사안이다. 시민과 불교계의 뜻을 헤아려 정부도 분명하고 강경히 대응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배송비 포함)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배송비 포함)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